

불평 [1]

창조 이후에 사람들에게 생긴 고질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이다. 이 세상에서 불평 없이 살수 있겠는가?

불평은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인간만이 갖는 죄의 습성이다.

불평은 거짓말과 이간질과 함께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3 가지 마음의 병이다.

그러므로 불평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에는 온전한 인격이 형성 될수가 없다.

불평이 제한 받지 못한 사회와 단체는 신뢰와 믿음이 상실된 인간관계로인해서 병적인 사회와 단체를 형성한다.

불평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의 불평은 첫 단계로 'Unconscious Incompetence' 의 상태에서 불평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Unconscious Incompetence' 상태란? 불평을 하는 사람 자신이 얼마만큼 불평을 하는지 전혀 의식 할 수 없는 무지한 상태에서의 불평을 의미한다. 이런 경험을 안해 본 사람이 있겠는가?

사람이기에 불평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불평을 조절하는 능력이 무능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수도 없이 불평을 하게되는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불평이 자신과 그리고 불평의 상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속한 조직과 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불평의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있겠는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불평의 조절 능력이 무능해진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번째로, 불평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담겨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만이 원하는 것을 표출하는 방법에는 다른 좋은 긍정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한다.

그러므로 불평은 꼭 조절되어야 한다. 조절된 불평은 감사와 축복 그리고 이해와 포용의 긍정적인 능력을 자라게 한다.

성경을 보면 불평을 많이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땐 자유를 원했다. 지도자가 없을땐 지도자가 없다고 불평했다. 그런데 지도자가 생겨서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곧 광야에서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한 지도자를 불평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왕이 없다고 불평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소리를 불평했다. 그리고 핍박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때 불평했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불평했다.

만약에 불평의 삶에서 자유로와 지고 싶으면, 먼저 자신의 'Unconscious Incompetence' 의 무능력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불평은 조절되어야하고, 또 조절 할수 있다.

건강한 삶, 생산적인 삶, 건강한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사회는 불평을 조절 능력이 가능할때 형성된다.